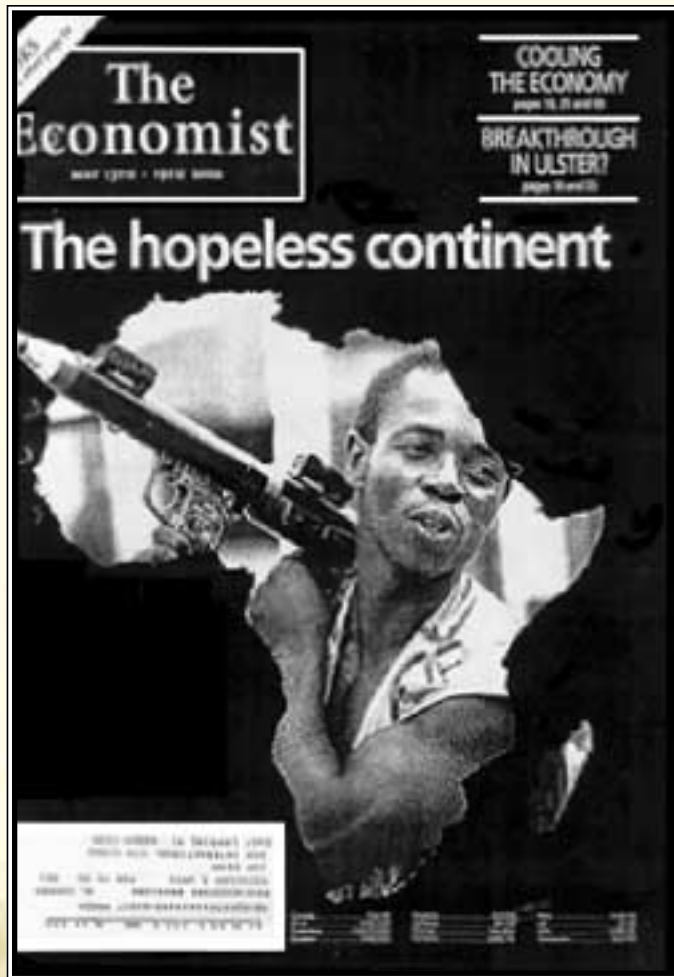


들어가는 글 I

글 · 서상현 shseol@hanmail.net



21세기 아프리카 르네상스를 꿈꾸며

21세기 들어 아프리카가 변하고 있다. 정치는 이미 1991년 베냉(Benin)에서 시작된 다당제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아프리카 대륙에서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실현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다른 어느 대륙보다 연 평균 6% 내외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치적 민주화가 경제성장의 큰 원동력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최근까지 미디어 매체에 비쳐지는 아프리카 대륙은 부정적인 요소들로 가득 찼다. 대표적으로 회자되는 단어는 '절망적인 대륙' (Hopeless continent)으로 많은 뉴스 매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였다. 물론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디즈니 만화영화와 같은 저널과 매체들은 아프리카 대륙을 '에텐 동산', '이국적인 분위기' 등으로 다루고 있지만 이것은 자연환경이나 동물과 같은 대상에 한정되어 있을 뿐이다.

특히 최근 아프리카 대륙이 새롭게 변모하고 있지만 아직도 아프리카는 일부 국가들에서 지속되고 있는 내전과 인권유린, 하루 2달러 이하의 생활을 하는 아프리카인들이 절반을 기록할 정도의 가난으로 비쳐지고 있다. 그리고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에이즈 같은 질병 등이 '아프리카' 라는 수식어와 함께 따라 붙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들로는 수단, 콩고민주공화국, 시에라리온 등에서의 소년병 문제, 여성들에 대한 강간, 그리고 인종갈등을 통한 살인 등이 아프리카의 후진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아프리카 비관주의에서 낙관주의로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들도 이제는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지난날의 아프리카 비관주의에서 21세기에는 아프리카 낙관주의로 바뀌고 있다. 특히 21세기와 함께 남아공, 세네갈, 나이지리아 그리고 알제리 등의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기존의 아프리카 대륙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아프리카 단결기구' (Organization of African Unity)를 대신하는 '아프리카 연합' (African Union)을 설립하였다.

새로운 아프리카 통합기구인 아프리카 연합은 '아프리카 르네상스' 를 주창하며 아프리카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있다. 기존의 통합기구였던 아프리카 단결기구는 지난 1963년 설립되어 아프리카 국가들의 단합과 이익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국내 문제에 대한 내정 불간섭이라는 한계로 인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분쟁이나 내전 해결에 있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반면 이를 대체한 아프리카 연합은 아프리카 연합 평화유지군 설립을 통해 적

극적으로 분쟁지역이나 내전에 개입함으로써 상당수 국가들의 정치 갈등을 해결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서부 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와 시에라리온 내전의 해결이었으며 현재에도 수단과 소말리아, 그리고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아프리카 연합 평화유지군이 유엔 평화유지군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

사실 '아프리카'라는 단어는 좋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라틴어의 아프리카(Africa, 낱씨가 좋은), 그리스어 아프리크(Aphrika, 추위가 없는), 아랍어 이프리카야(비옥한 땅) 등의 어원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아프리카 단어가 오늘날에는 가난, 기아, 에이즈, 그리고 무지 등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들로 압도당하고 있다. 아프리카는 3,000여 개에 달하는 종족과 1,500여 개에 달하는 언어, 그리고 다양한 문화와 종교 등으로 인해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각각의 인종·종족들은 서로 국경선을 넘어 형성되어 있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이유는 백인 식민주의자들이 인종·종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국경선 획정으로 발생한 것이다. 이는 오늘날 아프리카의 정치 상황을 불안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특히 인종·종족주의 요소들로 인해 민주화를 발전시키는데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시에라리온, 르완다, 부룬디의 내전이 서방국가들에 조장된 종족간 식민통치에 의해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아프리카연합 심벌



아프리카연합국가

아프리카의 복잡성과 다양성

아프리카에 대한 어떤 현상을 일반화시켜 언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 이유는 아프리카의 모든 현상들이 자연적, 역사적 배경에서 초래된 '복합성'과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초로 아프리카를 대외적으로 소개했던 유럽인들의 광대한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인식 부족은 오늘날에 이르러 많은 오해마저 야기하고 말았다.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도 사하라이남 내륙 지역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지리적 탐험조차도 19세기에 들어와서야

아프리카는 3천여 개에 달하는 종족과 1천 5백여 개에 달하는 언어, 그리고 다양한 문화와 종교 등으로 인해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각각의 인종·종족들은 서로 국경선을 넘어 형성되어 있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이유는 백인 식민주의자들이 인종·종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국경선 획정으로 발생한 것이다. 이는 오늘날 아프리카의 정치 상황을 불안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특히 인종·종족주의 요소들로 인해 민주화를 발전시키는데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시에라리온, 르완다, 부룬디의 내전이 서방국가들에 조장된 종족간 식민통치에 의해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시작되었으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는 20세기에 들어서 비로소 본격화되었다. 또한 아프리카 대륙의 지리적 광대함은 그 지형적 다양성과 함께 아프리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처럼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 오늘날에도 아프리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아프리카에 대한 선부른 편견이 아프리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낳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은 아시아 대륙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대륙으로 약 3,043만 평방km의 크기에 이른다. 이는 미국, 중국, 유럽, 인도, 아르헨티나 그리고 뉴질랜드를 합친 것과 비슷한 면적이다. 지구 전체 면적의 약 22%를 차지하며 사하라사막이 적도 이북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면적과 비슷하다. 홍해 끝 북동부의 시나이반도는 일반적으로 수에즈 운하를 기점으로 아프리카의 일부분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리유니온(Reunion), 모리셔스(Mauritius), 마다가스카르(Madagascar)도 아프리카의 한 부분이다.

북단인 튀니지의 수도 튀니스로부터 남단인 남아공의 희망봉까지의 길이가 8,045km, 동단인 세네갈의 다카르에서 서단인 소말리아의 동쪽 끝인 '아프리카의 뿔' (the Horn of Africa) 지역까지가 7,079km에나 달하는 광대한 대륙이다.

이 대륙에 53개 독립국이 존재하고 하고 있다. 남아공, 라이베리아, 에티오피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식민통치 경험을 지니고 있는데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1960년대를 전후하여 독립한 신생 국가들이 모여살고 있다. 이렇듯 국가건설이 짧은 이유로 인해 아직까지 정치적, 경제적 발전이 더딘 현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정치 분야에 있어서는 독립 이후의 시기가 냉전의 절정기였던 1960년대와 70년대이기 때문에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이데올로기에 휩싸여 정치적 민주화를 선택하는 대신 미국과 소련의 영향 하에 정권을 유지하려는 비민주적 정부가 우세한 상황이었다. 대표적인 국가들로는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레)의 모부투 대통령과

가봉의 봉고대통령, 앙골라의 산토스 대통령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공고민주공화국의 모부투는 군사 쿠데타로 집권하여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비호 아래 수십 년 동안 독재정권을 유지해 오며 부를 사유화한 정치인으로 1997년 반군들에게 쫓겨났다. 그는 재임 기간 동안 국가 전체 외채보다 더 많은 돈을 해외에 빼돌려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러한 독재자들은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미국이나 소련의 군사와 경제 지원으로 정권을 유지하였으며 미국 등도 사회주의 정권의 출현을 막는다는 명분 하에 독재 권력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독재 권력의 유지는 아프리카 민주화를 앞당기는데 걸림돌이 되었으며 아프리카 정치가 후진성을 면치 못한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

아프리카 권위주의 정부에서 민주화의 이행

이와 같은 아프리카에서의 권위주의 정부도 1980년대 말 구소련과 동구권의 몰락으로 민주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1991년 베냉에서 시작된 다당제 민주화는 인근의 카포 베르데를 거쳐 남아프리카의 모잠비크, 잠비아 등에서도 이루어졌다. 카포 베르데는 1974년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국가로 1991년 1월 17일 대통령 선거에서 17년 동안 대통령직을 유지하던 페레이라가 패배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잠비아의 경우 노동조합 출신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현직 대통령을 물리치고 대통령으로 당선되기도 하는 등 정치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1992년에는 콩고공화국과 탄자니아가 다당제를 허용하였다. 1993년에는 레소토·마다가스카르·니제르·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 자유선거를 실시하였다. 특히 냉전 종식 이후 아프리카 국민들은 이전의 정치적 요인에 의한 민주화 요구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빈발하게 나타났다. 위에서 언급한 잠비아의 경우 1990년대 초 경제침체와 고물가로 의사들이 폭동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 당시 잠비아의 물가는 1개월이 채 안 돼 두 배나 상승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로 대학에서도 카운다 대통령의 하야와 다당제 민주화를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결국 카운다 정부는 다당제 민주주의를 수용해야만 했다.

1994년 남아공에서 최초의 다인종 선거에 의한 흑인정부 탄생은 아프리카의 마지막 남은 유럽 식민지의 잔재를 제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94년 이전까지 남아공은 10% 내외의 소수 백인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유색인들을 차별하는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정책을 통해 수백 년 동안 집권하였다. 인종차별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로 유명한 남아공의 민주화는 수십 년 동안 아프리카 민족회의(African National Congress)를 중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지만 쓰레기를 뒤져야 하는 서부아프리카의 실상

심으로 한 흑인 반정부 단체들이 비폭력 혹은 무장투쟁을 통한 해방운동과 국제사회의 고립정책 등으로 냉전의 붕괴를 가져왔다. 그러나 1990년대 초 남아공도 민주화 여정의 과도기로 이 당시 흑·백의 충돌뿐만 아니라 흑·흑의 갈등으로 수만 명이 사망하는 고통을 겪기도 하였다. 이러한 갈등은 흑인정부가 들어선 이후 만델라의 '무지개 국가' 주창으로 인종·종족 사이 갈등이 어느 정도 치유되고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국가들처럼 아프리카 모든 국가들이 순조로운 민주화 이행을 수행한 것은 아니

었다.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에 소극적이었는데 케냐가 대표적인 국가이다. 케냐의 다니엘 아랍 모이대통령은 20년이 넘게 집권하였는데 1991년 야당과 학생들이 중심이 된 민주화 요구를 무력으로 진압하였다. 1990년부터 시작된 경제침체로 법률가, 학생, 대학교수 등 지식인들이 중심이 된 반정부활동에 대해 '쥐 같은 놈'이라며 이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억압하였다. 특히 외무장관을 지낸 오우코(Robert Ouko)는 의문의 죽음을 당하는 등 반대 세력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가했다. 물론 미국과 영국이 이러한 모의 정권에 대해 무상지원 중단 등 압박을 가했으나 이들 국가들도 아프리카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가인 케냐를 잃기 원치 않았기 때문에 압박의 한계가 있었다. 이밖에 가봉의 봉고대통령의 경우에도 1990년대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에 대해 진정한 아프리카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적어도 10년 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말로 민주화 요구를 묵살하는 등 아프리카 대륙에 퍼지고 있던 민주화 요구에 거부하는 국가들도 존재 하였다.

그러나 케냐와 같이 민주화를 거부하던 국가들도 2002년에는 선거를 통한 민주화 움직임에 굴복하여 케냐 최초의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졌고 야당 당수 키바키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나이지리아 역시 7차례가 넘는 군부정권이 들어서기도 했지만 1999년 민간정부로의 정권이양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등 많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민주화의 흐름으로 인해 현재 20년이 넘게 장기집권을 하고 있는 가봉의 봉고나 앙골라의 산토스 그리고 짐바브웨의 무가베 대통령과 같은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비민주주의 아프리카 국가들도 결국은 세계사의 민주화 흐름에 굴복할 것으로 보인다.